“정규수업외 학생 가르치면 징계”

광주시교육청 “방과 후 교과지도 말라” 고교에 공문

학부모·교사 “성적 떨어질 수 밖에…” 한숨

“정규수업 이외에 학생을 가르치면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학생이 끝내 거부하면 부모도 방과후 학습에 아이를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광주시내 한 고교 교장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공문(2012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을 받고 한숨이 나왔다. 광주 60여개 고교에 보내진 공문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공·사립고 10곳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시 교육청은 공문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방과후 학습·야간 자율학습 시간 준수, 0교시 수업금지 등) 지침 위반사항과 관련, 위반사항의 정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 수시 특별 장학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고교를 연중 수시 점검하고 인사 반영, 포상·연수제재, 각종 재정지원 억제, 학교 평가 반영, 관리자 경영 평가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민원 발생시 특별장학지도, 특정감사도 병행키로 했다.

해당 교장은 “어떻게라도 학생을 가르쳐보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이렇게까지 매도당해야 하는 일인지 궁금하다”며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문에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 부모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도 있다. “학부모의 요구(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겠다)가 있을 경우 학생과 충분히 상담을 하되, 학생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학생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학습 선택권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교사는 “교육을 받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들은 가르칠 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 수업시간에 교과관련 수업을 금지하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교과진도, 문제풀이 중심 학습, 평가반영 등을 금지하고 학생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동아리 위주 학생 생활이 이뤄지도록 선을 그었다.

이밖에 ▲고교 1, 2학년 8시 이전 등교 금지 ▲야간 자율학습 평일 10시 이전 종료 ▲학기 중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1, 2학년 자율학습 금지(3학년은 6시까지 가능) 등 시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타 지역 학생들의 경우 평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실정에서 시교육청의 교육방침을 그대로 이행하다보면 결국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돌풍에 가림막 폭삭 지난 2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중흥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가림막이 돌풍에 뒤집히면서 주변에 있던 에쿠스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파손됐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 일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불길 휩싸인 유조차 지난 2일 낮 12시38분께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25t 유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신모(34)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유조차가 불길에 휩싸여 소방당국이 화학차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소방본부 제공〉

순천지원 청사 출입문 방화

재판 불만 앙심… 수사 진척없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1일 밤 9시5분께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사 서쪽 출입문에 누군가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검찰과 경찰이 검경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이날 불은 당직 근무자 3명이 소방호스와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출입문 강화 유리를 태우고 10여분만에 꺼졌다.

검경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누군가 9.8ℓ 휘발유통을 들고 와 통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 방화로 결론 짓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선명하지 못해 용의자 신원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관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최근 9.8ℓ 통으로 기름을 구입한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재판과 관련된 A(47)씨를 붙잡아 당시 행적을 집중추궁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등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 사건으로 판단, 관련자를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범민련 남측 간부 집유

FTA 문건 배포는 무죄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최근 이적단체 구성과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미 FTA 저지 문건 배포와 관련해서는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취중 범죄 술핑계 이젠 안 통한다

‘심신미약’ 기준 없어 형량 감경 주원인

광주지법 “죄질 나쁘다” 50대에 중형

술에 취해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강도상해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과 관련 체계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재판부에서도 심신미약을 불인정하거나 오히려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취중 범죄에 대한 사회 일각의 관대한 사고나 처분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할 경우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법정 형량에서 절반 낮춰 선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형기준이 2~4년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1~2년으로 감경된다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의뢰를 받은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음을 강조하는 등 심신미약이 합의 여부와 함께 형량 감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술에 취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옛 동료의 딸(12)을 성폭행한 회사원 박모(54)씨의 경우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죄질에 비해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심신미약은 법정에서 자주 인정되고 있다.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심신미약의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취중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점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제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지난달 30일 2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모(61)씨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주 범행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순간부터 범죄를 시작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식실패 비관 30대부부 투신자살

“투신 직전 말다툼”

광주에서 30대 부부가 주식투자 실패 등 가정 문제로 말싸움 끝에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모두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5시25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부부사이인 최모(34·회사원)씨와 임모(여·32)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임씨의 아버지가 발견했다.

임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아파트 16층 집에서 딸과 사위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한 사이 뛰어 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버지 임씨는 이날 새벽 잠에서 깬 뒤 시끄러운 소리가 나 딸의 집에 들러 타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남편 최씨가 주식투자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 문제로 부부사이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와 임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와 원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만취 30대 가정집 침입 “돈 내놔”

쌍나팔

○…평범한 30대 회사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정집에 들어가 주먹을 휘두르며 “돈을 내놔라”고 협박하다가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7)씨가 지난 1일 새벽 0시2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한 빌라 5층 이모(44)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 등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고 해 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

○…김씨는 현장에서 이씨 등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으며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